

“영화 ‘26년’ 제작 두레에 참여하세요”



26년 두레 참여인원 : 7,265명 누적금액 : 367,850,000원

518소재 영화, 7일 현재 7265명 3억6700만원 모금

2만·5만·29만원 투자... 시사회 티켓·DVD 등 제공

“몇년을 기다린 영화 꼭 보고싶습니다.”

‘내 고향의 아픔을 알아주는 분들. 원작자, 배우, 감독, 제작자 분들... 광주의 아픔을 헤아려 주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영화 ‘26년 제작 두레’ 홈페이지)

지난 7월 크랭크 인한 영화 ‘26년’은 광주 5·18을 소재로 하고 있다. ‘괴물’ 등을 만든 청어람 미디어(대표 최용배)가 제작하는 ‘26년’은 1980년 5월 광주의 비극과 연관된 국가대표 사격선수, 조직폭력배, 현직 경찰 등이 26년 후 바로 그날, 학살의 주범인 ‘그 사람’을 단죄하기 위해 펼치는 극비 프로젝트를 그린 작품.

▲한해진·진구 등 주연

‘26년’은 지난 2008년부터 영화화를 추진했지만 투자와 관련한 ‘외압설’ 등이 불거지며 촬영 시작 며칠전에 투자가 철회되면서 제작이 중단됐었다. 김아중·류승범 등의 캐스팅이 발표되기도 했지만 영화제작이 늦어지면서 ‘없던 일’이 됐다.

이후 끊임없이 ‘26년’의 영화화를 진행했던 제작사는 지난 3월26일부터 5월말까지 제작비 일부를 마련하기 위한 대국민 ‘마중물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총 제작 예산인 46억원 가

운데 10억원을 모으는 프로젝트로 7938명이 3억8417만원을 모았지만 목표액에 미치지 못해 전액 환불조치했다.

하지만 돈을 돌려받은 이들이 “다시 투자하고 싶다”는 의사를 꾸준히 밝혔고, 캐스팅도 완료되면서 제작사측은 ‘영화 제작 두레’라는 형식으로 다시 불을 지폈다. 서로 도왔던 우리 고유의 ‘두레’를 본받아 구성된 ‘영화제작두레’는 ‘한껏 한껏을 내가 만든다’는 생각으로 실시간 정성을 보내는 시스템이다.

제작사는 ‘혼자면 할 수 없어도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라는 타이틀로 지난 6월25일 ‘영화 26년 제작두레’ 홈페이지(www.26years.co.kr)를 오픈했다. 7일 현재 7263명이 참여, 약정된 금액은 3억6700만원에 이른다. 지난 3월에 있었던 모금 때의 같은 기간보다 2배 가량 많은 액수다.

영화 홍보를 맡고 있는 올댓시네마 관계자는 신문이나 방송 등에 영화 관련 내용이 언급되면 하루 모금액에 2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유명인들의 참여도 화제가 되고 있다. 가수 이승환은 투자와 함께 영화 음악까지 맡고 있으며 개그맨 김제동, 소설가 공지영 등이 ‘26년’에 투자

영화 ‘26년’은... 강풀 원작 광주 5월 학살자 단죄

인기 만화가 강풀의 동명 웹툰이 원작이다.

대기업 회장 ‘김갑세’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후 1980년 5월에 계엄군으로 투입되었던 젊은 시절을 회상한다.

김갑세는 광주에 내려가 건달 ‘곽진배’, 국가대표 사격 선수 ‘심미진’, 현직 경찰 ‘권정혁’, 홍삼 조각가 ‘이치영’ 등 민중항쟁에서 부모를 잃은 이들을 한 명씩 만난다.

이들은 물론 속에서 김회장의 계획에 동참, ‘그’를 암살하기로 결심하며 함께 행동에 나선다.

인터넷 다음 연재시 일일 평균 200만 클릭, 1만여 페이지뷰로 화제를 모았으며 단행본(전3권·문학세계사)으로도 나와있다.

청어람은 제작노트에서 “단순히 역사 속 이야기의 재현드라마가 아니라, 과감하고 흥미로운 상상력이 더해진 픽션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했다. 또 지난 4일에는 ‘나는 꿈수다’ 제작진이 ‘26년’을 위한 프리마켓을 진행, 모금액을 전달하기도 했다.

두레에 참여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홈페이지를 통해 2만원권(시사회 2매, 특별 포스터, 미공개 제작정보 제공), 5만원권(시사회권 2매, 특별포스터, 소장용 DVD, 엔딩 크레딧 이름 올리기), 전제선이 29만원이라 말한 ‘그분’을 위한 특별권인 29만원권(혜택은 5만원권과 동일)을 구입하면 된다. 한명이 여러번 참여할 수도 있다.

▲11월 29일 개봉 예정

현재 한창 촬영중인 ‘26년’은 9월 말까지 촬영을 마친 후 11월 29일 개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감독은 ‘후궁: 제왕의 첩’ ‘마이웨이’ 등 많은 한국영화에서 미술감독으로 참여했던 조근현 감독이 맡았다.

어머니를 잃고 전직 대통령 저격을 노리는 심미진 역으로 한해진, 계엄군에 의해 아버지가 죽임을 당한 후 함께 습격에 나서는 건달 곽진배 역으로 진구가 출연하며 2AM 출신의 임슬옹, 배수빈, 이경영, 장광 등이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다.

청어람 마케팅 팀 관계자는 “굿펀딩을 통해서 지난번 모금과 달리 제작사측에서 따로 홈페이지를 운영해 진행중인 이번 두레는 따로 마감 기간 없이 영화 제작기간 내내 모금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심미진 역의 한해진.



곽진배 역의 진구.



다른 반으로 이사 갈 거야

안점옥씨 동화집

초등학교 아이들은 매일 무슨 생각을 할까

철없이 보이는 아이들에게도 뜻밖의 고민이 적지 않다. 보성 출신으로 제 5회 푸른문학상을 수상했던 안점옥 씨가 펴낸 ‘다른 반으로 이사 갈 거야’는 신도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통해 우리 주변 공감할만한 이야기를 엮어냈다. 학교라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아이들이 겪는 소소한 일들이라도 어찌보면 아이들에게는 생애 최대의, 최초의 사건들이라는 시각에서 담백하게 그려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수업시간에 얽매고 있지 못하고 교실 밖으로 나가 복도를 돌아다니는 성용이나 학교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무시하는 성용이가 못마땅한 태정아, 우산 하나에 자신만의 상상력으로 왕국을 세우는 영아, 엄마를 기다리다 만난

키 큰 나무 그림자와 신 나게 논 수혜 등 같은 반 초등학교생 네 명이 풀어놓는 이야기는 고만거리라곤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 아이들의 진지한 가슴 속 이야기다.

작가는 신도시가 조성됐는데 왜 갑자기 이웃에 살던 친구가 떠나야 했는지를 아이들 눈높이에서 들여다보는가 하면, 실내화를 신고는 나갈 수 없다는 선생님 말에 대뜸 실내화에 줄 세 개를 묶고 운동장으로 뛰쳐나가는 또래 아이들에게 나뭇잎만 기발한 상상력으로 책 속에 고스란히 풀어냈다.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작은 애깃거리를 포착해낸 작가의 세심함도 눈에 띈다. <문학동네·90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미술관에서 철학보기’ 김용근 전 9~22일 무등현대미술관

한번 둘러보는 것만으로는 왠지 미흡할 듯하다. 느긋한 마음으로 서너 번 전시장을 도는 등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게 이 전시를 제대로 관람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무등현대미술관이 9일부터 22일까지 여는 ‘미술관에서 철학보기’전은 미술 비전공자인 김용근 동강대 교수의 작품으로 전시 공간을 채운 자리다.

물리학을 전공한 비전공자의 전시라는 것을 제외하면 가독이나 난해하다고 하는 현대미술에 철학적 가치까지 담은 탓에 언뜻 주눅들만한 전시라는 선입견도 가질만하다.

하지만 어렵게만 느껴지던 인문학이 최근 소통을 위해 일상 속으로 파고들어가는 게 요즘 분위기다. 여기에 캔버스, 소나무, 플라스틱 등을 활용한 다양성, 시각장애우까지 배려해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한 세심함 등은 관람객들이 어렵지 않게 작품을 관람하는데 도움을 준다.

철학이 삶에 대한 성찰이자 기록이라는 점에서 작품을 관람하면서 다양한 철학적 상상을 유도해 관람객들과 소통을 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도 엿볼 수 있다.



‘기호의 분화와 통섭’

한정된 소수만 향유하는 미술관이 아닌, 누구나 쉽게 다가서고 즐길 수 있는 예술의 확산을 위해 의도된 전시라는 점도 일반인들이 쉽게 찾아갈 만하다. 문의 062-223-6677.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문화재단, 전통문화강좌 수강생 모집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일반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통문화예술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오는 28일 개강해 11월 23일까지 매주 1회 총 12주 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의 모집 분야는 일반인 대상 국악실기(관소리, 풍물놀이, 가야금병창), 전통공예(서각, 한지), 다도, 전통음식 강좌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가야금병창 등 8개다.

전통문화관에 상주하고 있는 무형문화재 이임례·정춘실·방성춘씨가 단가 ‘심청가’ ‘춘향가’의 한대목을 가르치며 서각 전문작가인 조정숙씨가 ‘한글 서각 새기기’를, 한지공예 작가인 한경희와 ‘다종이 인형 만들기’를 진행한다. 마감은 오는 25일이며 참가비는 5만원, 문의 062-232-1501~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중앙박물관 관람객 2000만명 눈앞

국립중앙박물관이 오는 7일을 전후로 관람객 수 2000만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 2005년 10월 28일 용산으로 이전해 재개관한 후 6년 9개월여 만의 기록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2000만 돌파 당일 박물관 으름홀에서 축하행사를 한다.

2000만 명제로 입장하는 관람객, 그를 전후해 입장한 10여 명, 추첨을 통해 선정된 관람객 등에게 다양한 상품을 증정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개관 3일 만에 관람객 10만 명을 돌파한 후 44일 만인 2005년 12월 관람객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어 2009년 5월 1000만 명, 2011년 1월 1500만 명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SINCE 1982

창업 30주년 국제보청기

30% 할인봉사 **OFF SALE**

www.kjhr.com

국제보청기 독일 한사톤(HANSATON) 정품만 취급합니다.

본점	062) 227-9940	충장점	062) 227-9970
목포점	061) 262-9200	장흥점	080) 222-9975
서울점	02) 765-9940	순천점	061) 752-9940

보약, 홍삼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성역

북고당 한약방

정송간도로

새우리병원

한약방이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90,000원